

“더 당당하게 자기경영을...”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리더십 교육



‘여성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교육이 불교여성개발원 주최로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 중이다.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왼쪽)의 첫 강좌 모습.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 9월 20일 장을 열었다. 정원의 2배에 가까운 70여명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교육의 첫 강사는 ‘우리는 여성’을 주제로 한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의 강좌.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진정한 여성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우리 사회의 여성은 “뭘 하나?”고 물으면 몇몇 못 한 마음으로 “그냥 주부”라고 대답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현재’를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은 “그런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오히려 양성평등의 사회에 근접하고 있

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자기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당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자아실현도 가능합니다. <법구경>에는 ‘독립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일을 겪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미 어려운 안에 있습니다.”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불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2.9%에 달하고, 실제 사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풍부한 자원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여성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전체 불자의 53%...활용은 미흡 신체·경제·정신적 독립 이뤄야 다양성·이질성 공존 적극 수용을

김인숙 원장은 이같은 현실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기경영을 통해 불교와 사회를 선도하는 여성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다양성과 이질성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도 주문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새 패러다임에 맞추어 나가는 여성이 많아질 때,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회,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인재육성을 위해 리더십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02)722-2101

글·사진·박봉희 기자 bypark@buddhapia.com

‘여성리더 만들기’ 교육일정

▷9월 27일-비전, 조화 그리고 균형의 여성 리더십 조직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와 행동 원칙을 살핀다. 이화영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강사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알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월 11일-21세기 한국 사회·문화 트렌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고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읽는 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찾는다. 손경년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기획단 도시조성실장은 21세기 한국사회의 화두는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18일-나의 빛깔과 향기는 어디에? MBTI 성격 분석을 통해 참석자들의 심리적 선호유형, 즉 나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김일명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는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보다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10월 25일-나와 너다름과 관계의 미학 훌륭한 리더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이를 긍정적인 관계 맺기로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김일명 동국대 겸임교수는 각종 성격형별 사례를 들어 보다 나은 관계 맺기를 풀어간다.

▷10월 28일-나의 비전 만들기(세미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어주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한다.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1월 1일-조직, 조직속의 여성리더십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직속의 여성리더들이 겪는 고충을 사례를 들어 점검한다. 이화영 숙명여대 강사는 조직 또는 조직문화에서 여성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소개한다.

▷11월 8일-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 김인숙 원장은 연륜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의 상관관계를 짚어본 뒤 ‘수평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상대와 함께 끊임없이 교감, 조율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조언한다.

▷11월 15일-창의적 회의기법 회의를 주재하는 능력은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은 브레인스토밍, 바인드 맵핑, 발질 토론 등 창의적 회의기법을 통해 조직 내에서 협조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준다.

▷11월 22일-의사소통과 갈등 중재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기주장 훈련, 당당함 테스트, 커뮤니케이션 훈련, 갈등해결방법 배우기 등을 적용해 당당한 여성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11월 29일-여성 리더의 자기관리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10년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도출해 낸다. 이진아 세종리더십센터 소장은 미래의 인생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이끈다.

▷12월 6일-여성 리더의 사회적 역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한가 하는가.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무엇인가. 진진자 (사)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은 우리 사회 여성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양성평등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본다의 경제학 (18)

영원한 기업은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매우 극한적인 어려움에 맞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데, 이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세태가 몹시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의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을 택하게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인연도 언젠가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일체가 무상하므로 영원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도 생물처럼 언젠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인연이 다한 기업의 생존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회생의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불같이 유형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 탄생은 창조 아닌 많은 인연 화합한 결과 시간이 갈수록 변하므로 생존에 집착 말아야 일체 무상함 여실히 알면 경제활동도 적극적

사회에서 사업의 실패는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이다. 왜 실패가 사업의 본질일까. 기업이라는 것도 생물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새로 창업한 기업의 90% 이상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그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준다.

새로 탄생한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 엄연한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1970년대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심지어 사라지고 해서 남아 있는 기업을 세는데 열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지만 30년 이상 이상 지속되는 기업은 100세가 넘게 사는 사람만큼 드물다.

기업의 탄생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다. 수많은 인연이 화합한 결과이다. 기업의 구성 요소에는 인적, 물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기업

수하게 되면 충분히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절제된 판단력이 경영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이 유두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불교경영학에서는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고갱이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한 때 화합해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 기업의 운명이라고 체념하여 소극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고 미련을 버려야 할 때 기업의 존속에 집착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해악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와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고 가게 된다. 일체가 무상함을 여실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하고 시점인연을 기다리는 행동이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이다.

■ 구병진(경영학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02)732-1520

반야심경 6폭 병풍 반야심경 6폭 병풍은 처음부터 완성까지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든 병풍입니다. 양면은 고급천에 담아 파손을 막고 오랜 사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면에는 차례·제사 모시는데 적합한 반야심경을, 뒷면에는 회갑·잔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군자 그림을 표구하여 실용적입니다. **가격 : 148,000원**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부터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돼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던 고만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물을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복하며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파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법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오머니반메홍福지갑

음악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일년에는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옥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 동서남북에서 돈을 끌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집귀를 쫓고 계 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잠깐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뜻밖에도 격정하면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오머니반메홍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악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사은하실 분의 명품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법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돌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풀리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인연이 없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악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풀리지 않아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귀구 기다림 산중에 계시실 때 가난으로 힘없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오머니반메홍 옥자대명왕진언으로 명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라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펠라불광사에서 절안법공과 축원법공을 미친 오머니반메홍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